

# 44. 바른 임금이 되는 길(6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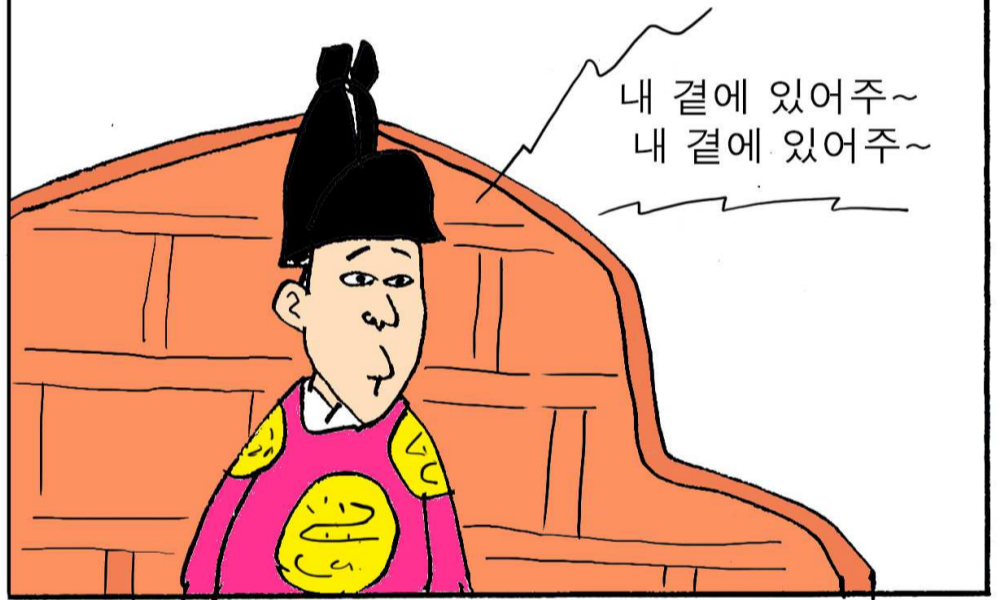
68세의 노학자 퇴계가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로 하여금 성왕(聖王)이 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국충정에서 성학십도를 저술해 올리다.



명종이 죽고 어린 선조가 새 임금이 되었다.



선대 왕들처럼 선조도 퇴계를 중용하고자 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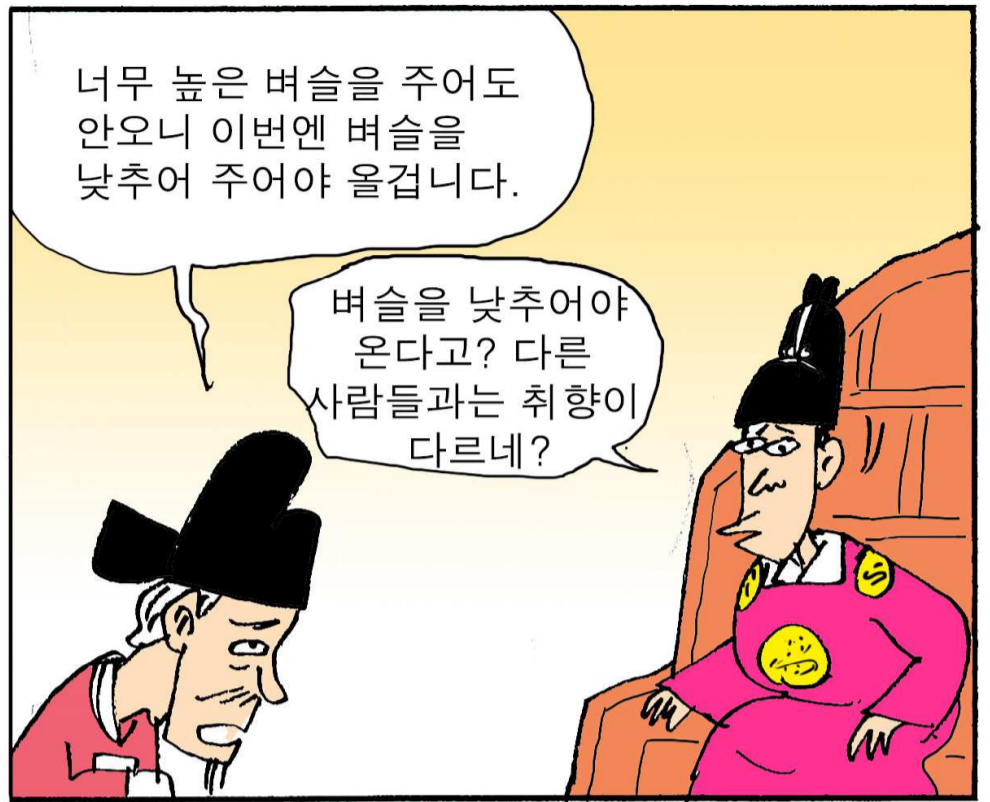


이러한 어찰을 보낸다.



조정에 머물면서 나의 어리석고 못난 자질을 도와주도록 하라.





7월 24일 어전에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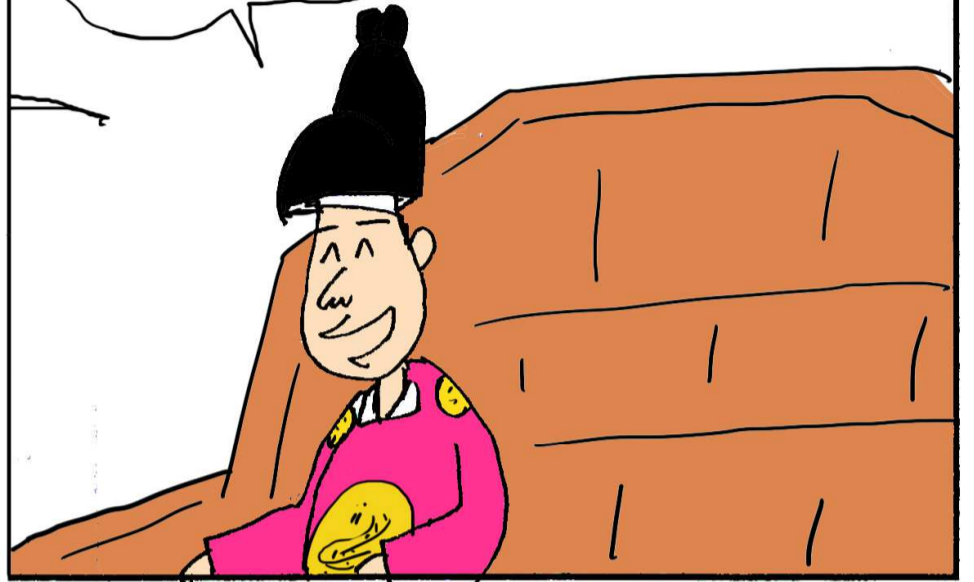
그동안 명을 받들지 못한 죄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어허, 무슨 말씀이오.



죄라니요? 내가 경을 얻었음은 참으로 나라의 복이오.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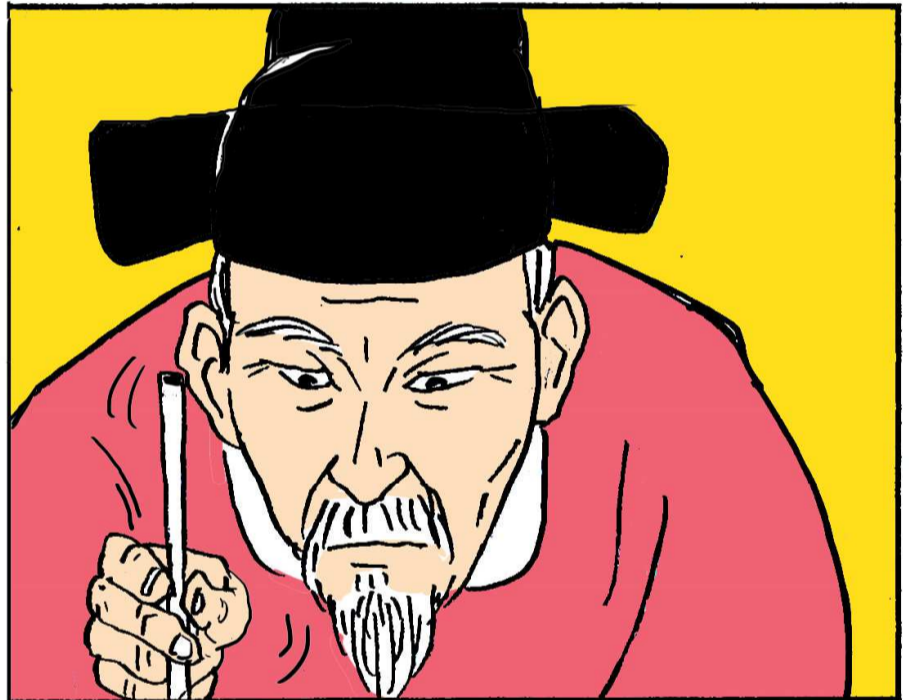


이후 선조의 중용과 퇴계의 고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퇴계는 아이디어 하나를 짜낸다.

내가 고향에 내려가도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글을 지어 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작성한 것이 무진육조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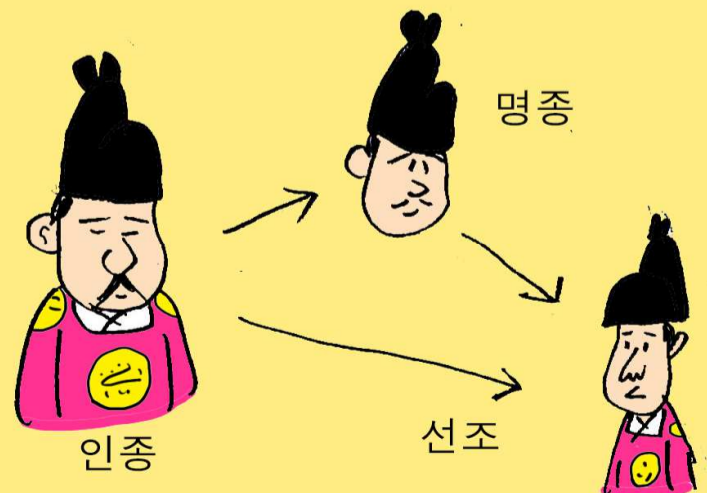
무진년(1568년)에 임금께 올리는 6가지 조항이란 뜻이다.

소신이 없어도 이대로만 국정을 운영한다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내용을 볼라치면.....

1. 선조는 명종의 친아들이 아니므로 선왕들의 뜻을 잘 받들어 효도를 다할 것



2. 간신의 무리가 임금을 둘러싸기 마련이니 조심하고 집안 다스림에 효도를 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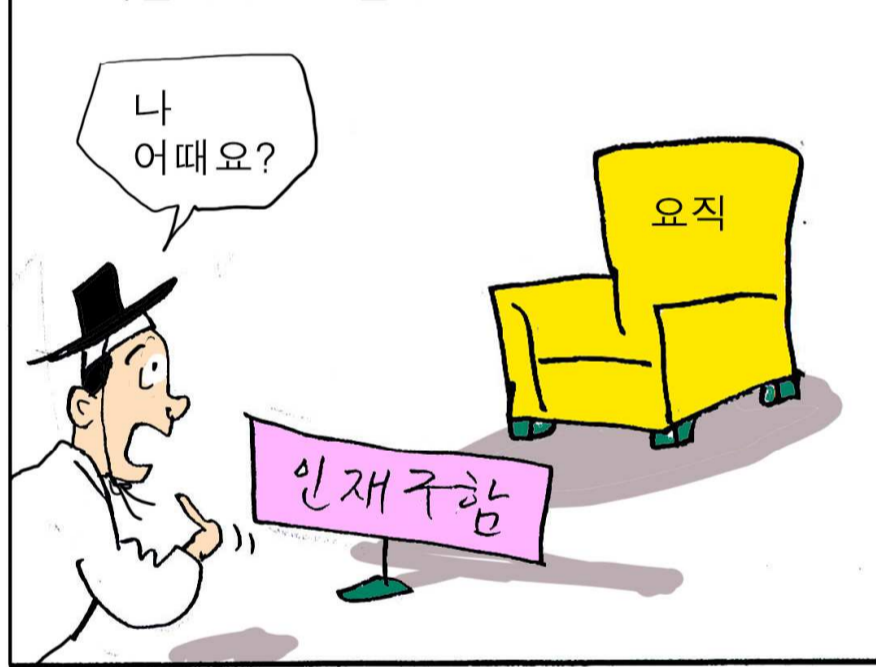
3. 성인이 되는 학문을 익혀 그것으로써 다스림의 근본을 세울 것



4. 사회의 윤리도덕을 밝혀서 인심을 바로 잡되 간사한 무리를 물리칠 것



5. 충성되고 어진 신하를 찾아 중요한 벼슬자리를 맡길 것



6.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백성을 다스릴 것



무진육조소를 본 선조는 감동했다.



그러나 연로하단 핑계로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으로 가려고만하니  
난 참으로 박복한 왕이로다..



선조가 또 어필을 들었다.

필설로  
감동시켜  
가는 것을  
막아보자!



“이 여섯 가지 조목은 참으로 역사에  
변함없는 격언이니 내가 어찌 지키지  
않겠는가...”

됐다.  
난 이제  
내려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만은  
허하지 않노라!”

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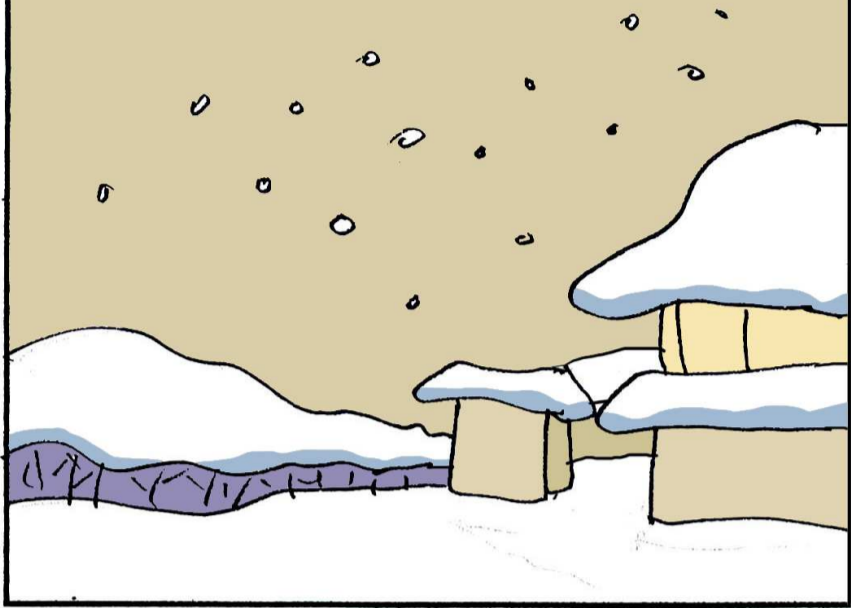
공, 내려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행히 상감께선 학문을  
좋아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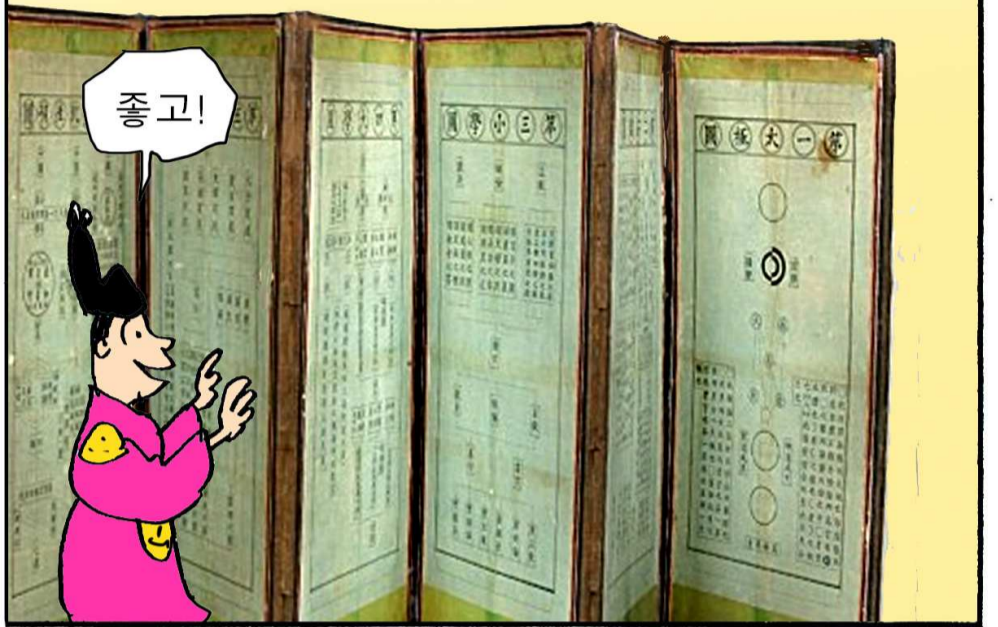
내가 평생 공부한 것을 모범답안으로  
요점정리해 드리면 머리회전이 빠른  
분이라 이해하실 것이다.



1568년 퇴계의 나이 68세 12월 16일 눈,  
요점정리한 내용을 그림과 설명을 곁들여  
성학십도라 제목을 정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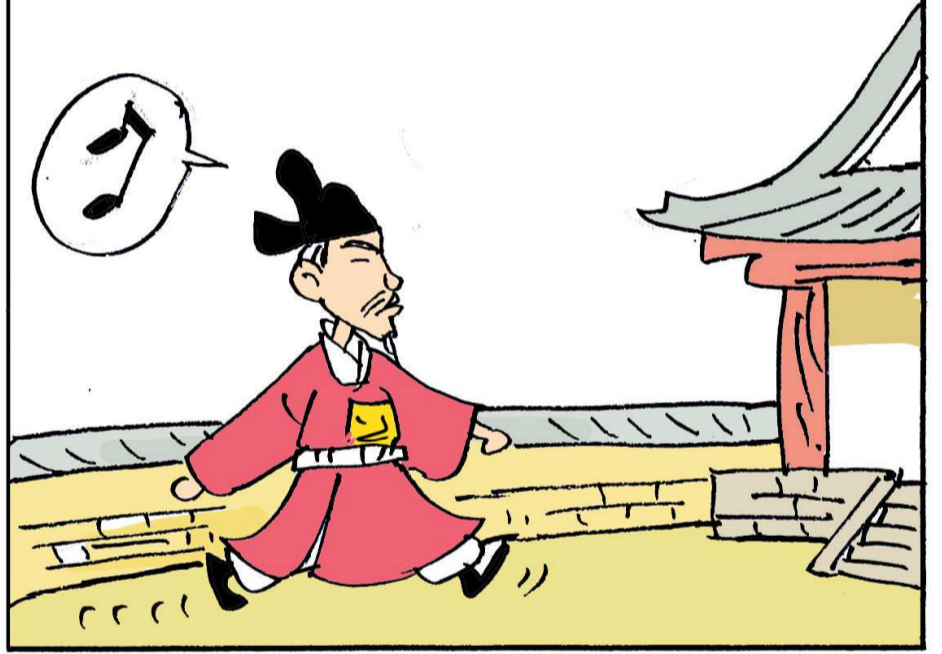
성학십도를 받아 본 선조는 병풍과 책자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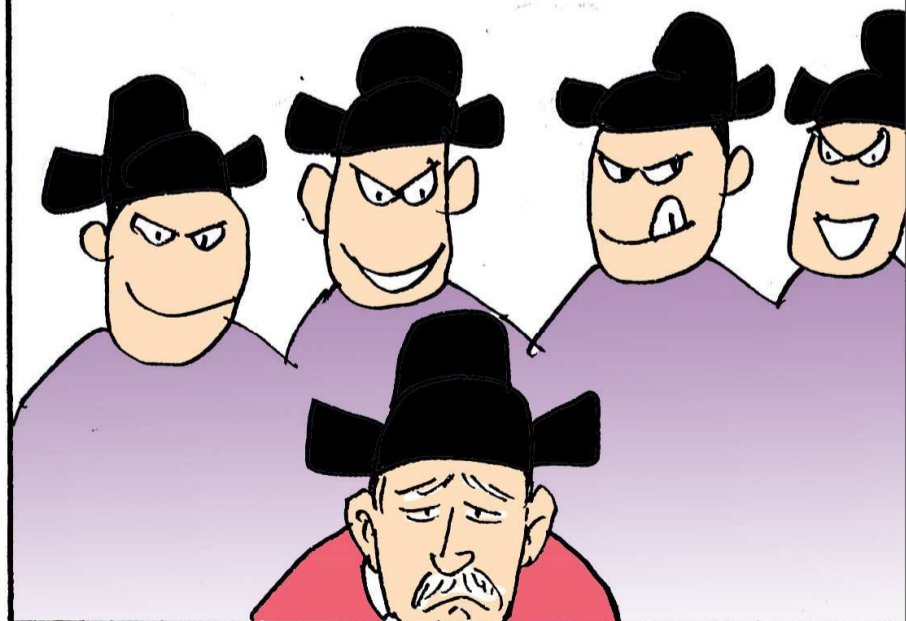
당시 퇴계의 문인 중 우성전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다.



퇴계선생이 1568년 조정에서 물러난 것은  
정치에 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권세를 잡고 있는 무리들이 하는 일  
없이 이익과 녹봉만 탐내는 자들이라



선생이 하고자 하면 여러 모로 방해하여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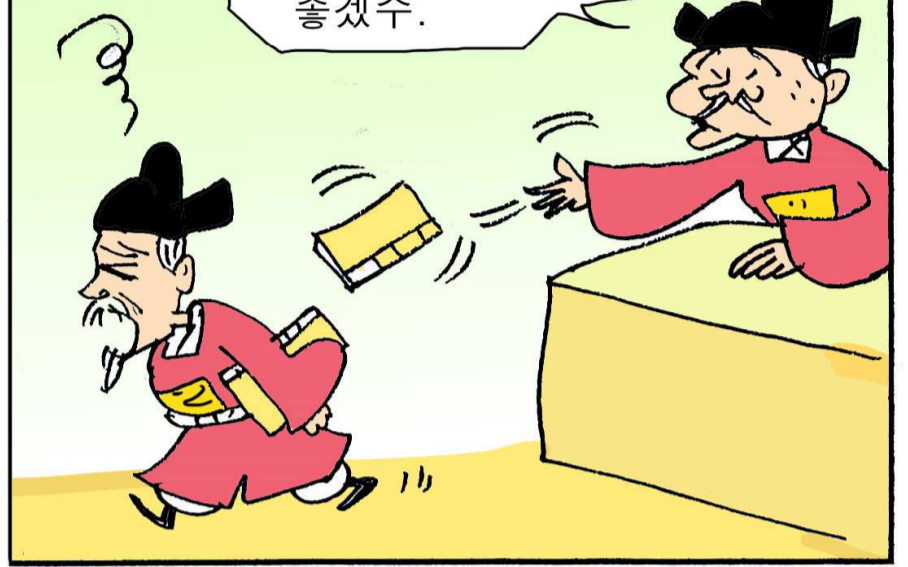
성학십도를 올린 후 문소전 의례와 법도를  
고증하여 올렸으나

또 뭐요?  
내가 좀  
봅시다.



당시 재상의 반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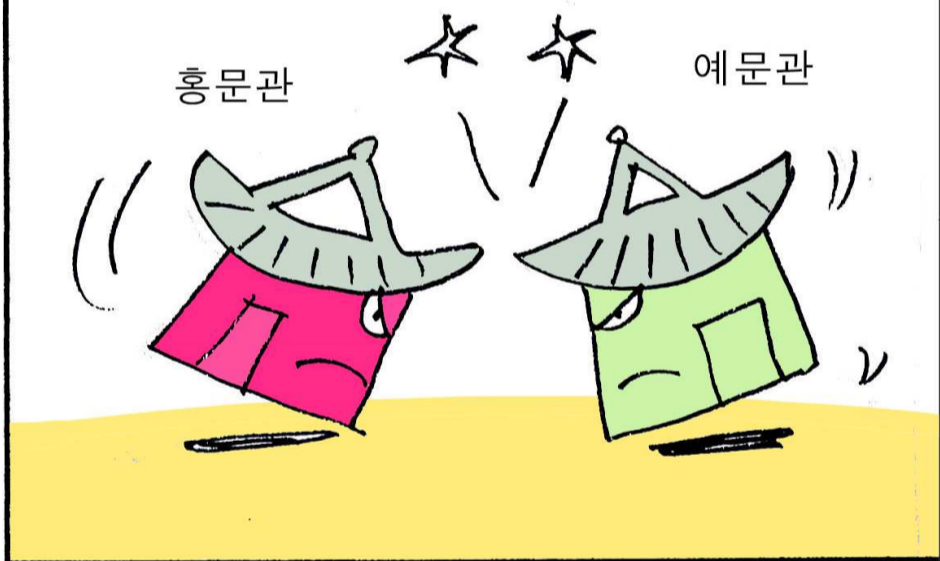
굽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안올리는 것이  
좋겠수.



이때 홍문관, 예문관은 일만 있으면 티격거려

홍문관

예문관



조정은 불화하고 상하는 틈이 생겼다.

왕이 바뀌어도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벼슬아치들의  
당리당락 싸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구나...



1569년 3월 초 퇴계는 판중추부사 자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물러나기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한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중책을 피해서 자리를 주었는데도  
물러난다하니 과인이 그렇게도 싫은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도다.



전하의 은혜는 하늘 같사오나 신은 이미 전하를 모실 수 없을 정도로 병들고 늙었습니다.



조용히 고향에 내려가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싶으니 부디 허락해 주시기를 앙청하옵니다.



경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어쩔 것인가? 마지막으로 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시구려.



간사한 무리를 멀리두고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여 올바르게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백성의 편에 서서 어진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소, 경의 충언을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소.



퇴계는 비로소 조정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